

‘지역사랑 철도여행’ 전남 외면…10명 중 1명만 방문

보성 1만1181명 ‘전국 8번째’…장흥 0명 등 지역별 격차 극명
코레일 “상품 자체 문제 없어”…전남 매력 알릴 대책 마련 시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인구 감소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출시한 여행상품 ‘지역사랑 철도여행’이 정작 전남 지역 관광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누적 이용객이 출시 1년 만에 26만명을 돌파했음에도 전남 지역을 찾은 이용객은 10% 수준인 2만여명에 불과했다. 장흥의 경우 코레일 여행상품으로 찾은 이용객이 전무했다.

29일 코레일이 공개한 ‘지역사랑 철도여행’ 이용

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8월 처음 출시된 이후 1년 5개월 동안 전국에서 26만 3948명이 이용했지만 협약을 맺은 전남 9개 지역으로 온 관광객은 10% 수준인 2만6924명에 그쳤다.

이 때문에 여행객들의 전남의 매력적 관광 여건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사랑 철도여행’은 열차 승차권을 50% 할인 받아 전국 42개 인구감소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상

품으로, 전남에서는 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장성·장흥·함평·해남군 등 9개 자체가 코레일과 협약을 맺고 관련 상품을 운영했다.

여행자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가는 열차 왕복편(50% 할인)을 선택한 후, 해당 지역의 숙박이나 렌터카 중 하나를 고르고 관광지 입장권을 선택 결합하는 형태로 직접 여행패키지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충북 영동(2만 7095명), 전북 남원(2만4523명), 경남 밀양(2만 3119명) 등의 순이었고 여행상품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825억원으로 추산된다는 게 코레일측 분석이다.

특히 코레일은 전남 9개 지역에서 발생한 생산유

발효과를 총 75억4992만384원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전국 전체 효과(825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다.

협약을 맺은 9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은 보성의 경우 여행상품 출시 이후 지금까지 1만1181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장성은 6309명, 함평은 3876명이 방문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협약을 맺은 곡성은 3664명이 찾아왔다.

반면 강진은 730명, 구례 375명, 해남 553명, 고흥은 236명에 그쳤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상품을 운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용객이 텃없이 적었던 상황이다. 장흥의 경우 단 한명의 이용객도 찾지 않는 등 철저하게 외면을 받아 원인

과 대책 마련 등이 절실히다. 장흥군의 관심 부재로 다른 지역과 달리 시티투어나 관광택시 등의 연계 서비스에 대한 예산 지원도 없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코레일 관계자는 “보성의 경우 전국 42개 지역 중 이용객 수가 8번째로 많은 곳”이라며 “철도여행 서비스 자체는 지역별 차이가 없는 만큼, 장흥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나 지역 내 콘텐츠 차이로 여행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철도 여행상품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려고 하지만 계속 삭감된 상태”이며 “예산이 편성되면 홍보도 강화해 관광객 유입을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다 복구했다면서요! 29일 광주시 동구 산수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에서 지하철 진출입구 개설, 지하 지장을 이설 등 공사로 인해 차도 및 인도 통행이 일부 통제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22일 이곳을 포함해 공사 구간 전 도로의 통행을 원상회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무분별한 가로수 벌목 논란에…서구, 자체 기준 마련

전문가·주민 의견 수렴 절차 포함…사후 관리 기준도 명시

광주시에서 가로수가 무분별하게 잘려나가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1월 14일자 6면 등)에 광주시 서구가 새로운 ‘가로수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구는 29일 전반적인 가로수 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체 가로수 관리 매뉴얼을 수립해 운영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구는 산림청 매뉴얼과 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각 자치구 조례가 마련돼 있음에도 가로수 제거·이식·보존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어 혼선이 크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매뉴얼을 만들

기로 했다.

자체 매뉴얼에는 가로수 관리 기본 원칙을 비롯해 가로수 규모·유형별 관리 기준, 도로·공동주택 등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가로수 처리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가로수 벌목, 이식 시 전문가·주민 의견 수렴 등 의사결정 절차를 구체화하고 이식·제거 이후 사후 관리 및 원상회복 기준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광주시 차원의 자치구 공통 매뉴얼이 마련되면 5개 자치구가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다만 시의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서구 자체 매뉴얼을 우선 수립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자치구는 별도의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자치구는 광주시 차원의 운영 지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지난날에도 원상회복비용 기준을 조례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필요한 경우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별 여건과 도로 환경이 달라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 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신학과(Ph.D.)	○
		성경연구학과(Th.D.)	○
		사회복지학과(D.S.W.)	○
		교정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심리디지털융합학과(D.Psy.)	○
		유아교육학과(M.Ed.)	○
일반대학원	박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가족상담청소년학과(M.A.)	○
		교정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서비스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6. 1. 20.(화) ~ 27.(화)

·전형 일: 2026. 1. 29.(목)

신학대학원 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신학과(M.Div.)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 2학년 모집인원 0명
- 지원자격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 3학년 모집인원 0명
- 지원자격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학부 편입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 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학과	○○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6. 1. 28.(수) ~ 2. 5.(목)

·전형 일: 2026. 2. 6.(금) 오후 2시

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직관적이고 차별화된 명칭을 찾겠다는 게 조직의 구상이다.

전시관별 기준 명칭과 신규 명칭 2개 등 총 3개로 구성돼 있는데, 희망자는 네이버 품(온라인 설문)이나 여수시 시민소통광장 누리집에 접속 후 7개 문항에 답하면 된다. 설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도 제공한다.

/김지율 기자 dok2000@kwangju.co.kr

202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6. 1. 20.(화) ~ 27.(화)

·전형 일: 2026. 1. 29.(목) 오후 2시

www.kwangshin.ac.kr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